“허당기 많은 점이 저랑 닮았죠”

8년만에 스크린 복귀한 한채영

21일 개봉 영화 ‘이웃집 스타’

철부지 엄마 ‘혜미’ 역 맡아

배우 한채영<사진>이 8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도도하고 차가운 이미지의 역할을 주로 맡았던 그는 오는 21일 개봉하는 ‘이웃집 스타’에서 철부지 엄마이자 톱스타인 한혜미 역을 맡아 ‘허당’ 매력을 발산할 예정.

19일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이렇게 밝은 캐릭터는 오랜만에 해보는 거라 욕심이 났다”며 “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했던 것과 조금은 다른 역할을 해보고 싶었어요. 도도하고 차가워 보인다는 선입견을 깨고 싶었죠. 혜미는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해맑고, 나쁘게 말하면 철없고 허당기가 있는데 저한테도 그런 면이 많거든요. 연기하면서 제 실제 성격을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한채영이 맡은 한혜미는 데뷔와 동시에 스타가 된 톱배우다. 연하의 아이돌 가수와의 열애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스캔들 메이커이기도 하다.

중학생 딸을 뒀지만 딸의 존재를 숨긴 채 딸과 이웃으로 살아온 그녀는 둘의 관계가 탄로 나기 직전까지 몰린 상황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영화는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로 진행되지만, 티격태격하던 모녀가 앙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코끝 찡한 감동을 주기도 한다.

실제로 5살 아들의 엄마인 한채영은 “아무래도 아이를 낳기 전보다 좀 더 역할에 공감하면서 연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12년 전 20대 때에도 드라마 ‘온리 유’에서 엄마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뭔가 어렴풋이 알듯도 했지만 피부로 와 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감정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연기했다면 지금은 대사 하나하나에 공감하면서 연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딸에게 잔소리를 듣는 철부지 엄마를 연기하는 그는 실제로는 어떤 엄마일까?

“아들 바보예요. 정말 꼼짝도 못 하죠. 아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처음엔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요즘엔 저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가끔 SNS에 사진도 올려요. 자식 자랑하고 싶은 게 모든 엄마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는 “아들이 엄마가 연예인이라는 것은 크게 의식 못 하는 것 같다”며 “아직은 평범한 엄마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작품은 한채영이 ‘걸프렌즈’(2009) 이후 8년 만에 선보이는 영화다. 그동안 중국에서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를 찍은 그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작품활동을 하다 보니 쉬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더 많이 활동했다”고 했다.

최근에는 ‘언니들의 슬램덩크’, ‘오지의 마법사’ 등 예능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하며 안방 시청자들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다.

“예능을 하면서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할 때 제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부담스러웠다면 모든 일에 편하게 접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특히 ‘오지의 마법사’는 세계 각국의 오지를 찾아가면서 찍는 거라 좀 더 어렵지만 색다른 매력이 있어요. 제 모습을 더 많이 드러내고 더 편해져야 하죠.”

그는 앞으로 작품에서도 “더 털털한 역할도 해보고 싶고, 한국에서는 한번도 안 해봤던 사극도 해보고 싶다”며 도전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잠잘 때 빼면 음악만 생각하죠”

40여년 음악내공 한영애

내년 하반기 까지 전국투어

“인기가수 한영애입니다.”

가수 한영애(60·사진)의 인사에 작은 웃음이 피었다. 밝은 표정으로 들어선 그의 톤은 낮지만 경쾌했다. 앞머리만 초록빛으로 물들인 헤어스타일은 ‘소리의 마녀’란 수식어와도 꼭 어울렸다. 그는 지난 9일 여수를 시작으로 전국투어 ‘바람’을 시작했다. ‘바람’은 2014년 11월 발표한 6집 ‘샤키포’의 수록곡에서 따왔다.

“바람에는 ‘윈드’(Wind)란 뜻도 있고, ‘위시’(Wish)란 뜻도 있죠. 남녀의 사랑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곡이기도 하죠. 힘들 때 ‘내가 뒤에 있잖아’라고 위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노래합니다.”

6집이 출시된 해는 세월호 참사로 사회가 슬픔과 우울감에 빠져있을 때다. 19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만난 한영애는 “당시 나도, 모든 사람의 마음도 무거워서 ‘이런 음반이 나왔다’고 알리면서 음악을 나누기 어려웠다”며 “그리고 1, 2년이 흘렀고 올해 초부터 이 앨범에 담긴 노래를 부르게 됐다. 이 음악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싶어서 내년 하반기까지 투어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6집 작업 때 맑고 희망적인 가사만 나왔어요. 사람이 절망스럽고 기댈 데가 없으면 희망이란 지푸라기를 잡나 보다는 생각이 들었죠. ‘샤키포’를 지금 부르니 동질감, 연대감의 노랫말이 좋더라고요. 유행가는 흘러가는 노래란 말이 있지만 지금의 마음으로 들으면 새 노래가 되죠. 이번 투어에서 그 노래들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싶었죠.”

‘내 체온을 의심하면 안 돼/ 뒤돌아보지 마 겁먹을 거 없어/ 너의 꿈을 버리지 마/ 기적은 일어날 거야’(‘샤키포’ 중) 그는 지난해 겨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 무대에 올라 회자됐다.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 주세요’란 ‘조율’의 가사는 희망을 염원하는 이들에게 깊은 위로와 감동을 안겼다. ‘조율’은 한돌이 작사·작곡한 노래를 한영애가 개작해 완성한 곡이다.

“광화문에 자주 나갔지만, 일반 대중의 마음과 다를 게 없었어요. 절실했다고 할까요? 가수이니 절실한 연대감으로 제 마음을 전달한 것뿐이죠. 오로지 연대감으로요.”

촛불집회 무대에는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지만 40여년을 노래한 그에게 무대는 여전히 일상의 공간을 넘은 특별한 장소다. 그는 “무대는 나를 성장하고 발전시켜 주는 성장통 같다”고 비유했다.

이번 공연에서 그는 안무나 코러스 없이 오직 그의 보컬과 밴드의 수려한 연주만으로 무대를 채운다. ‘소리의 마녀’란 수식어답게 포크, 록, 블루스, 테크노 등을 아우르며 내공을 뿜어낸다. 1975년 혼성 통기타 그룹 해바라기 1집으로 데뷔한 그는 1985년 솔로 1집 ‘여울목’을 냈고 1986년 프로젝트 그룹 신촌블루스의 창단 멤버로도 활동했다. 통기타 시절엔 ‘한국의 멜라니 사프카’로, 록에 천착할 때는 ‘한국의 재니스 조플린’으로 불렸다.

“음악을 내려놓을 수 없다. 더 고공행진”이라고 웃은 그는 “일상에서 많은 것이 걸러지고 단순해지고 음악밖에 안 남았다. 열심히 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잠자는 시간 빼고 그 생각만 한다. 그래서 더 절실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대란 공간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나타냈다.

“전 공연 전날 가서 1, 2층을 다 둘러보죠. ‘그곳의 관객이 무대를 바라볼 때 어떤 각도일까, 나의 고개 각도는 어느 정도면 되겠다’부터 비상구 위치까지 체크하는 습관이 있어요. 공간을 장악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쳇말로 맞장뜬다고 할까요? 하하하.”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그레이트 지리산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행복한 지도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엄마의 소개팅 (재)	50 병원선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재) 50 감성툰 고맙습니다 2	50 맨홀-이상한 나라의 필 (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재)		00 MBC 정오뉴스 20 병원선 (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KBS 걸작 다큐멘터리		30 문화사색	55 닥터 365
2	40 가요무대 (재)	00 KBS 뉴스타임 5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20 텔레몬스터 25 프리파라 2 55 별별며느리(재)	00 뉴스브리핑
3	40 톡쏘는 인터뷰 소다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4	00 4시 뉴스집중		00 MBC 파워매거진	00 SBS 스페셜
5	00 KBS 뉴스 5 1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스페셜 30 팔도밥상 스페셜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롤러코스터보이 노리 2 15 여자배구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 최종 예선	00 MBC 이브닝 뉴스 40 왕은 사랑한다 (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숨터	50 2TV 생생정보	10 살맛나는 세상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55 지식 통조림
7	00 KBS 뉴스 7 35 공감다큐, 사람	50 내 남자의 비밀 (재)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3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45 하하랜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40 생로병사의 비밀			
10	35 감성툰 고맙습니다 2 40 KBS 뉴스라인	00 맨홀 – 이상한 나라의 필	00 병원선	00 다시 만난 세계
11	10 문화의 향기	10 2017 드라마 스페셜(재) 〈당신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10 라디오스타 스페셜	10 싱글 와이프 1~2부
12	00 동행 (재) 50 인간극장 스페셜	20 세상의 모든 다큐	40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커피의 트렌드를 선도한다, 미국 시애틀〉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7:30 뚝딱맨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1~2
08:3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
08:45 한글이 야호2
09:00 레이디버그
09:30 몰랑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재)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숙주 오삼불고기와 볶음밥〉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초대석(재)
13:40 미래강연 Q 〈4차 산업혁명과 생명공학〉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5:00 마샤와 곰
15:30 호기심 나라 오키도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16:30 한글이 야호 2(재)
16:45 딩동댕 유치원 1~2(재)
1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7:30 뚝딱맨(재)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몬카트(재)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9:30 EBS 뉴스
19:50 특집 다큐 〈공감 캠페인 눈맞춤〉
20:50 세계테마기행 〈유럽 속 비밀의 낙원, 불가리아 중세로의 시간여행 제라브나〉
21:30 한국기행 〈맛나다, 떡 3부 어머니와 떡〉
21:50 EBS 다큐프라임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대혁명 - 대학, 변해야 산다〉
22:45 극한직업 〈특수청소부〉
23:35 장수의 비밀
24:25 지식채널e
24:30 미래강연 Q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뉴노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0일(음 8월 1일 庚戌)

子 48년생 자유롭게 뜻을 펼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을 수다. 60년생 주의하지 않는다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72년생 자신만 만족하지 말고 많이 알려야 효과를 볼 수 있다. 84년생 귀인을 만나거나 귀물을 접할 수도 있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72, 51

丑 49년생 해낼 수 없는 일이니 빨리 포기할수록 이익이다. 61년생 단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73년생 개념의 혼란이 생기고 산만해지기 쉬운 때이다. 85년생 확신이 지나치면 주변인들에 대하여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 52, 03

寅 50년생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니라. 62년생 동선을 달리 하여 새로운 길을 밟아 볼 필요가 있다. 74년생 여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서서히 불거지고 있느니라. 86년생 일관되게 지속되어야 능률이 오른다. 행운의 숫자 : 00, 39

卯 51년생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형태이다. 63년생 부당하다면 결코 용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75년생 많은 재앙이 입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87년생 애매하다면 회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40, 20

辰 52년생 부싯돌을 쳐야 불이 일어나게 된다는 명확한 사실을 알라. 64년생 우연이나 천연의 혜택을 입을 수도 있다. 76년생 상대의 깊은 마음속을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 88년생 가급적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96, 81

巳 53년생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이면까지 조심하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바이다. 65년생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리라. 77년생 보류했을 때 무리가 따른다. 89년생 소신껏 행한다면 보람이 따를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82, 10

午 42년생 빨리 접을수록 이익이다. 54년생 문서에 이로움이 있으니 활용해보자. 66년생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길목이로다. 78년생 주관적인 안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을 그르친다. 90년생 마음이 끌리어 쉽게 빠져들기에 충분하다. 행운의 숫자 : 91, 34

未 43년생 평상심을 유지하라. 55년생 역지사지 해본다면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리라. 67년생 길조가 나는 듯이 기운차도다. 79년생 자신이 예상해왔던 바대로 진행하게 되리라. 91년생 너무 바쁜 나머지 동분서주하리라. 행운의 숫자 : 07, 24

申 44년생 큰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56년생 눈앞의 일에만 급급해 한다면 멀리 내다 볼 수 없겠다. 68년생 잘만 활용한다면 상당한 수익으로 연결될 수 도 있겠다. 80년생 실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4, 68

酉 45년생 초심을 잃지 말고 계획해 왔던 방법대로 행하라. 57년생 밤길에 달마저 기우니 걱정부터 앞서리라. 69년생 목표를 좀 더 높게 설정해도 무방하다. 81년생 이상하게 여겨진다면 지난날의 경험을 기준으로 객관적 판단을 하라. 행운의 숫자 : 59, 25

戌 46년생 애지중지하여 왔던 바의 일부가 사라질수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58년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된다. 70년생 보기 드문 현태 앞에서 놀라리라. 82년생 서두른다면 오히려 더딜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0, 60

亥 47년생 끝까지 경청해봐야 한다. 59년생 정도를 벗어나면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71년생 한 번의 실수가 공든 탑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83년생 과거에 묻어두었던 비밀들의 실체가 사실로 드러나는 형세를 이룰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6, 8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